

6차산업 기업가정신 지표개발*

김성규 (경남6차산업지원센터)**

박상혁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대학원)***

박정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전자상거래무역학과)****

설병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대학원)*****

손은일 (경남6차산업지원센터)*****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최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6차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6차산업 기업가정신의 개념을 정립하고, 6차산업 기업가정신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촌 자원의 가치를 개발하고 생산, 가공, 유통·관광을 융합하는 특성을 지닌 6차산업 창업에서는 전통적 창업에서 강조되는 기업가정신 요소 이외에 더 다양한 기업가정신 요소들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전통적 기업가정신 구성요소와 6차산업 기업가정신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6차산업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현장에 필요로 하는 기업가정신 핵심요소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6차산업 기업가정신 지표를 설정하고 6차산업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탐색적인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성 측정 및 지표를 평가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헌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설정된 요인들이 합리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나 컨설팅,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기획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6차산업 진행 주체들의 기업가정신을 진단하고 개별적 필요에 맞는 맞춤형 역량개발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주제어: 기업가정신, 6차산업, 6차산업 기업가정신 지표

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고용 없는 성장시대로 인해 실업률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가 차원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창업을 통한 경제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동태적 환경 속에서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규제, 시장조건, 금융환경, 지식 인프라, 능력 개발 등 고려해야할 요인들이 매우 많다. 이는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 정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서 창업시장을 위축시키는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기도 한다(Lee, et al. 2012). 기업가정신은 벤처창업과 경제성장의 근간이기 때문에 고용없는 성장과 고실업률이 만연한 선진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기업가정신’은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있으나 ‘미래의 불확실성과 높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혁신능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의 의지 또는 활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Kim & Park, 2011). Bac & Cha(2009)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은 2000년을 기점으로 1990년대에 급속히 성장하였던 벤처생태계의 발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벤처’에서 ‘기업가정신’으로 키워드가 변화되었다. 전통적으로 이익창출을 목표로 하는 영리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기업가정신의 메커니즘과 원리가 최근에는 순수 상업적 영역을 벗어나 대학 및 비영리 기관, 사회적 기업, 공공부문 등 다른 영역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가정신이 강조되면서 농촌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6차산업 영역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6차 산업과 관련된 경영체의 수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기 때문이다(Seo, et al. 2013).

6차산업은 농촌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1차(생산) × 2차(가공) × 3차(유통·관광)를 융합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농촌 창업의 유형이다. 생산에만 의존하던 우리의 농촌은 부가가치

* 본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 314021-03-1-SB070)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제1저자, 경남6차산업지원센터 전임연구원

*** 교신저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대학원 교수

**** 공동저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전자상거래무역학과 박사과정

***** 공동저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대학원 교수

***** 공동저자, 경남6차산업지원센터 센터장

· 투고일: 2016-05-18 · 수정일: 2016-06-28 · 게재확정일: 2016-06-29

증대를 위해 6차산업화를 진행하지만 FTA 체결로 값싼 수입 농산물이 대거 보급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차산업은 필요사업에서 기회사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6차산업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 비해 6차산업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개념 및 모델 정립, 관련 정책연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6차산업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경영전략이나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6차산업은 농촌경제성장의 근간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올바른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6차산업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6차산업화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를 정의하고 평가할 수 있는 6차산업 기업가정신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6차산업 기업가정신 지표 개발은 문헌조사, 전문가 인터뷰, 설문조사, 실증분석의 순서로 진행한다. 먼저 문헌조사를 위해 전통적인 기업가정신과 6차산업에서 요구되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다음으로 6차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6차산업 기업가정신의 지표에 추가, 수정, 보완한다. 문헌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조사 과정을 통해 종합된 6차산업 기업가정신 지표를 토대로 6차산업 종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6차산업에서 요구되는 기업가정신의 지표를 통계분석한 후 최종 완성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1 기업가정신 연구

2.1.1 기업가정신의 정의

기업가정신은 앙트러프러니어십(Entrepreneurship)을 번역한 것으로, 한문으로는 企業家精神, 起業家精神으로 쓸 수가 있다. 기회를 추구하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태도와 실행 정신이다. 그런 의미에서 업을 일으키는 起業家精神이 적합하다(Bae & Cha., 2009). 그 외에도 기업가정신은 전문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Schumpeter(1934)는 기업가정신이란 “기업의 발전을 위해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며, 혁신은 지속적인 창조적 파괴”라고 주장하였다. Morris & Paul(1987)은 “기업의 대표가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적이며 진취적으로 활동하는 기업가의 성향”이라고 주장하였고, Stevenson & Jarillio(1990)는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혁신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진취적으로 자원을 새롭게 구성하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Lumpkin & Dess(1996)는 “기존 제품과 차별되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로서 이를 개발하기 위한 행동양식이나 의사결정”이라고 주장하였다. Timmons(1994)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것, 위험은 있지만, 보상을 기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Stevenson, et al.(1989)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기회의 추구”라고 주장하였으며, Rocha(2004)는 “혁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활동 창조, 이로

인한 새로운 조직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기업가정신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하나의 관점으로 기업가정신을 정의하고 이해하는 것은 불완전하며 단편적이다. Ahn(2010), Yoon(2012)과 Lee, et al.(2014)은 기업가정신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기업가정신 정의와 구성요소를 분류하였다. <표 1>은 선행연구로 제시된 기업가정신의 정의를 재구성한 내용이다.

<표 1> 전통적인 기업가정신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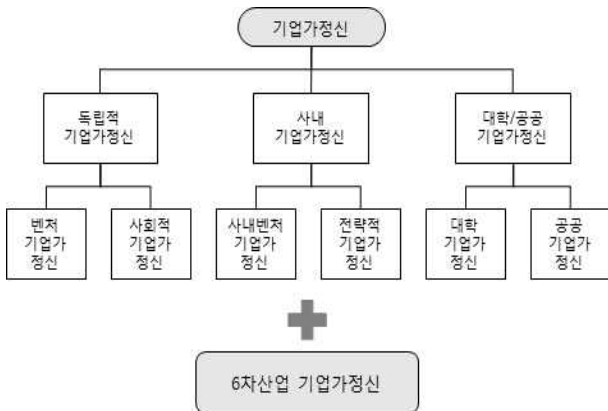
| 연구자 | 개념 정의 |
|--------------------------|---|
| Schumpeter(1934) | 기업의 발전을 위해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며, 혁신은 지속적인 창조적 파괴 |
| Kirzner(1979) | 불안정하고 불균형한 미래시장을 예측하는 능력 |
| Miller(1983) | 기업들이 제품시장의 혁신에 참가하며 위험한 투자를 강조하고 적극적 경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 |
| Gartner(1992) | 새로운 조직의 창출하는 기업가의 행동 |
| Zahra(1991) | 제품과 공정의 혁신, 모험 및 전략적 갱신을 포함하는 개념 |
| Dollinger(1995) | 위험과 불확실성의 조건하에서 수익과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 경제조직의 창출 |
| Timmons(1994) | 사실상 무로부터의 가치 창출을 위한 창조적 능력 및 위험감수 의지 |
| Scherer & Palazzo (2011) | 기업을 경영할 때 법률적, 윤리적, 경제적 차원에서 책임을 지며 사회 전체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것 |

출처: (Ahn, 2010; Yoon, 2012; Lee, et al. 2014 재구성)

6차산업에서의 기업가정신은 Seo(2013)에서 언급되었는데, “농촌에서 지역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으로 지역 어메니티(Amenity)를 활용하여 자원을 발굴하며, 이를 가치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업화하여 추진하려는 태도와 정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1.2 기업가정신의 유형

기업가정신은 순수 상업적 영역을 벗어나 사회적 기업가정신, 대학/공공 기업가정신에까지 확대되고 있다(SMBA, 2012). Bae & Cha(2009)와 Lee, et al.(2014)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가정신의 유형에는 크게 독립적 기업가정신, 사내 기업가정신, 대학/공공 기업가정신이 있다. 독립적 기업가정신은 개인이나 작은 집단이 새로운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며 벤처기업가정신, 사회적 기업가정신으로 나뉜다. 사내 기업가정신은 기존 기업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조직전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가정신을 의미하며 사내벤처, 전략적 기업가정신이 있다(Bae & Cha, 2009; Lee, et al., 2014). 나아가 최근에는 군사 분야에서의 군대 기업가정신, 농업분야의 농업 기업가정신, 도시 개발 분야의 도시 기업가정신으로 퍼져나가고 있다(Bae & Cha, 2009; Lee, et al. 2014; Sharma & Chrisman, 1999). <그림 1>은 기존연구에서의 기업가정신 카테고리 분류에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6차산업 기업가정신을 추가한 모형이다.



출처: (Bae & Cha, 2009; Lee, et al., 2014; Sharma & Chrisman, 1999 내용수정)
 <그림 1> 기업가정신의 유형

2.1.3 전통적인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

Yoon(2012)은 전통적인 기업가정신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정리하여 “기업가정신이란 급변하는 기업의 경쟁 환경 속에서 현재 통제할 수 있는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등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창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으로,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체적인 태도와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표 2>는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를 보이는데, 혁신성, 민첩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회적책임으로 요약할 수 있다(Ahn, 2010; Yoon, 2012; Lee, et al. 2014).

<표 2> 전통적인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

| 연구자 | 구성요소 |
|-------------------------|-----------------|
| Schumpeter(1934) | 혁신성 |
| Kirzner(1979) | 민첩성 |
| Miller(1983) |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
| Gartner(1992) | 진취성 |
| Zahra(1991) | 혁신성 |
| Dollinger(1995) | 위험감수성, 혁신성 |
| Timmons(1994) | 위험감수성 |
| Scherer & Palazzo(2011) | 사회적책임 |

출처: (Ahn, 2010; Yoon, 2012; Lee, et al. 2014 재구성)

혁신성(Innovationess)은 Schumpeter가 최초로 사용한 개념으로 산업속에서 기술향상을 강하게 추구하는 성향으로, 가치의 변화보다는 기능 자체의 변화를 의미한다(Schumpeter, 1934; Park & Ahn, 2016). 민첩성(Alertness)은 미래의 시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예측하여 대응하는 행동이고(Kirzner, 1979), 진취성(Pro-Activeness)은 시장변화에 대해 경쟁자들 보다 한발 앞서 추진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이다(Covin & Slevin, 2006). 위험감수성(Risk-taking)은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를 선호하며 용기있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욕을 의미한다(Miller, 1983). 사회적책임이란 기업이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인지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회 전체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Scherer & Palazzo, 2011).

2.2 6차산업 연구

2.2.1 6차산업 개념 및 특성

우리나라는 정부의 주도하에 2000년 이후 농업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6차산업화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6차산업은 농촌 기반의 융복합 산업으로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농업기반의 1차(생산)산업, 2차(가공·개발)산업, 3차(판매·홍보·서비스·관광)산업의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령자나 여성도 새로운 일자리를 스스로 창출하는 사업과 활동이다(Kim & Heo, 2011; Shigenori & Lee, 2012).

농업의 6차산업화는 농촌경제를 살린다는 긍정적 목표를 기대하며 진행하고 있지만 1차 산업에만 종사해오던 농업인들의 개인역량으로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모두 융합하여 성공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농업의 생산기술과 농산물 가공기술은 다르고, 농산물 시장과 농가공품 시장 역시 다르게 형성된다(Seo,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6차산업은 이제 기회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귀농·귀촌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건강·웰빙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식품·먹거리 등에 대한 안전성 및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을 확대된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식품소비패턴의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하고, 외식산업과 연계하거나 관광·교류·치유·복지 등에 대응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지금 농촌경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Kwon, 2014). 농촌지역기반의 사업으로서 6차산업의 특징은 5가지로 구분된다(MAFRA, 2013).

<표 3> 6차산업의 특징

| 주요특징 | 설 명 |
|--------------------|---|
| 지역농업 지향 | -지역농업의 생산(1차산업)이 반드시 있어야 함 -고령층, 소규모 농가들도 참여할수 있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함 |
| 소비자 및 시장 지향 | -소비자의 관심을 이끌고 시장논리에 맞아야함 -시장반응과 소비자 선택 파악이 핵심 -적극적 시장개척이 필요함 |
| 협업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 -1차,2차,3차 산업은 분리되어 있는 전문 영역으로 이들의 전문성을 살리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함 -내·외부 조직들과의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함 |
| 6차산업 경영체의 경영·관리 역량 | -6차산업에서 복합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 해내는 경영역량이 요구됨 |
| 과학기술 및 ICT도입 |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계량화, 정량화, 객관화, 표준화 기술 도입이 필요함 -ICT도입으로 산업간 유기적 결합이 필요함 |

출처: (MAFRA, 2013 재구성)

<표 3>에서 나타난 것처럼 6차산업은 생산적 복지 차원으로 부터 시작하여 지역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즉, 생산적 복지와 지역 비즈니스 활성화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6차산업을 위해서는 각 구성원들이 6차산업형 경영·관리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6차산업이 사회적으로 적극 권장되고 있지만, 무조건적인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1차 생산에서 2차 제조가공, 3차 유통·판매·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운영하면 부가가치는 올라간다. 하지만 2차, 3차 산업으로의 확장은 투자비용과 투자시간을 소요하고, 신제품이 나올 경우에도 경쟁제품이 많은 현대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은 매우 낮을 수 있다. 따라서 6차산업도 무한경쟁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창업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경영체의 경영·관리 역량을 강화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6차산업에 종사하는 경영자들도 기업가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2.2.2 6차산업 기업가정신에 대한 기존연구

농촌지역에서 새로운 업을 창출해내는 것이 6차산업이다. 대부분 지역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지는데, 지역 자원에 대한 가치를 개발하고 서로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도 연결하고, 엮어나가며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해야한다. 융합적 개념으로 표현되는 독특한 유형의 6차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들의 6차산업 기업가정신이 확립되어야한다. 6차산업 기업가정신은 최근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Seo(2013)는 6차산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기업가정신을 제시하고 6차산업 기업가정신에서 중요한 요인은 가치개발, 진정성, 협력성, 진취성이라고 하였다. <표 4>는 Seo(2013)가 제시한 요인을 구성요소로 나열하고 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표 4> Seo(2013)의 6차산업 기업가정신 구성요소

| 구성요소 | 개념 |
|------|--|
| 가치개발 |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발굴하여 쓸모 있는 가치로 만드는 것 |
| 진정성 | 고객, 지역, 사회에 경제적 이익과 함께 제품의 가치를 향상 시키고 책임과 소양을 다하는 태도와 자세 |
| 협력성 | 주변에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서로 돕는 지혜, 상생의 힘이 필요한 것 |
| 진취성 | 잠재된 수요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 |

출처: (Seo, 2013 재구성)

Seo(2013)에 의해 정의된 6차산업 기업가정신 구성요소는 전통적 기업가정신 구성요소와 비교해보면 ‘진취성’ 한가지만 공통 요소로 나타난다. 이는 ‘6차산업이 전통적 창업과는 다르다’는 뜻을 내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6차산업이 활성화되고 농촌 공동체 경영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현상에 비교하면 Seo(2013)와 Seo, et al.(2013)의 연구를 제외한 다른 연구는 필요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6차산업이 전통적 창업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간주하고 6차산업의 기업가정신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따라서 문헌조사 과정을 통해 전통적 기업가정신의 핵심요소를 도출하고 연구과정에서 그 내용을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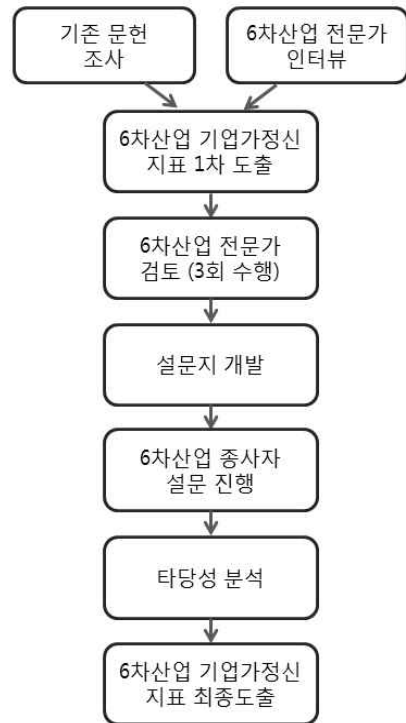
III. 연구방법

지표는 절차에 따라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 프로세스 뿐만 아니라 각 단계별 연구 이론에 의해 제시되어야한다(Bagozzi, 1994). 첫 번째는 초기 지표 후보 리스트의 조사영역의 연구를 검토한다. 이론적 배경과 기존연구를 진행한다. 두 번째는 지표의 초기 목록을 설정하고 조작적 정의를 만든다. 세 번째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후보 목록을 만들고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다. 네 번째는 지표의 유효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다섯 번째는 통계 분석을 수행한다. 여섯 번째는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지표를 도출한다(Bagozzi, 1994; Oliva & Reidenbach, 1987).

본 연구에서는 6차산업 기업가정신 지표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과정을 진행하였다.

먼저 기존 기업가정신 이론을 정리하며, 다음으로 기존에 제시된 6차산업 기업가정신을 추가하였다. 6차산업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가 적은 관계로 6차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하여 6차산업 기업가정신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이론연구에서 도출된 기업가정신에 추가하였다.

초기 설문 내용을 중심으로 6차산업 전문가의 의견을 피드백하여 유사한 요인이나 중복되는 요인을 통합하고 1차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최종 선정된 설문지를 통하여 실제 6차산업 종사자들에게 조사를 실시한 후 검사지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분석하고 최종 6차산업 기업가정신 지표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2> 6차산업 기업가정신 지표 개발 진행과정

3.1 문헌연구를 통한 지표도출

가장 먼저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전통적 창업에서의 기업가정신 핵심요소와 6차산업 창업에서의 기업가정신 핵심요소를 도출하였다. 앞의 <표 2>에서 조사된 내용을 보면 전통적인 창업에서 기업가정신의 핵심요소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민첩성, 사회적 책임이 있다(Yoon, 2012; Ahn, 2010; Lee, et al, 2014). <표 4>에서 조사된 내용을 보면 6차산업 창업에서 기업가정신의 핵심요소는 가치창출, 진정성, 협력성, 도전성이 있다(Seo, 2013). <표 5>는 문헌조사 통해 도출된 기업가정신 지표 목록이다.

<표 5> 기업가정신 핵심요소 문헌조사 결과

| 구분 | 전통적인 기업가정신 (문헌조사) | 6차산업 기업가정신 (문헌조사) |
|-------|-------------------|-------------------|
| 혁신성 | ○ | |
| 민첩성 | ○ | |
| 위험감수성 | ○ | |
| 사회적책임 | ○ | |
| 진취성 | ○ | ○ |
| 진정성 | | ○ |
| 협력성 | | ○ |
| 가치창출 | | ○ |

3.2 6차산업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지표도출

3.2.1 인터뷰 대상 선정

6차산업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기존 문헌연구가 부족하여 6차산업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6차산업 현장 전문가 3명과 6차산업 비즈니스 전문가 3명을 대상으로 2015년 9월에서 11월까지 전문가들의 현장방문 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1회 이상 만남을 주선하여 진행하였다. <표 6>은 인터뷰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6명의 일반적 정보이다.

<표 6> 6차산업 전문가 일반적 정보 및 인터뷰일시

| 구분 | 성명 | 소속 | 직위 | 인터뷰일시 |
|------------------|------|-------------------------|------|----------------------|
| 6차산업 현장 전문가 3인 | 류 O하 | 류O농원 (경남 진주시 명석면) | 대표 | 2015년 11월 20일 오후3시 |
| | 오 O호 | 에OO의 산골이유식 (경남 하동군 악양면) | 대표 | 2015년 11월 23일 오후3시 |
| | 전 O광 | 하OO 주식회사 (충남 공주시 계룡면) | 대표 | 2015년 11월 25일 오후6시 |
| 6차산업 비즈니스 전문가 3인 | 임 O엽 | 전)전북 O주군청 (전북 O주군) | 전)군수 | 2015년 9월11일 오후8시 |
| | 신 O욱 | 동O보감촌 IRS사업단 (경남 진주시) | 단장 | 2015년 11월 26일 오전9시 |
| | 조 O만 | 경O 과학기술대학교 (경남 진주시) | 교수 | 2015년 11월 27일 오전 10시 |

3.2.2 전문가 인터뷰 내용

주요 인터뷰 내용은 전문가들의 소속, 직위 등을 포함하는 일반적 정보와 현재 6차산업의 진행상황이나 동향을 질의하였고, 6차산업에서 꼭 필요한 기업가정신 3가지, 어떻게 해야 지역 농촌에서 6차산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첫번째 6차산업 현장전문가 인터뷰는 류O농원 류O하 대표로 류O농원 생산현장에서 진행하였다. 류O하 대표는 28년 동안 대봉감, 단감을 생산하고(1차), 감말랭이, 스낵, 꾀감으로 가공(2차)하며, 피자만들기 체험, 감따기 체험, 감꾸기, 감백설기떡, 쌀꾀감케익, 감잎차 만들기 체험, 빵튀기 체험, 전래놀이 체험, 떡매치기 체험(3차)등의 프로그램으로 6차산업을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류O하 대표가 생각하는 6차산업 창업에서 요구되는 기업가정신은 첫 번째로‘진정성’이며 이는 농민들이나 소비자들은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다 알고 있으니 진실됨, 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는‘협력성’으로‘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함께가라’는 말처럼 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마트 같은 곳은 개인보다는 단체에서 납품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정보를 알려주었다. 세 번째는 ‘사업추진성’으로 마음만 잘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비즈니스를 힘 있게 잘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두 번째 6차산업 현장전문가 인터뷰는 하동 에OO의 산골이유식 오O호 대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생산물 가공현장에서 진행하였다. 오O호 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5년 12월, 이달의 6차산업 인(人)으로 선정되었고, 2012년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여, 슬로시티인 하동에서 이유식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원료의 80%를 지역 특산물, 제철 농산물을 활용하고, 17명의 지역민을 채용함으로써 지역 농가 소득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최한‘농수산식품 창업 콘테스트’에서 창조상을 수상하였다. 오O호 대표가 생각하는 6차산업 창업에서 요구되는 기업가정신의 첫 번째는‘공감소통능력’으로 마케팅을 위해 얼마나 많이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필요를 발견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직원들 스스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동기부여’라고 답변하였으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세 번째는 ‘상생협력성’으로 사업이 잘 되면, 나만 배부른 것이 아닌, 함께 혜택을 나눠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세 번째 6차산업 현장전문가 인터뷰는 충남 공주에 있는 하OO주식회사 전O광 대표를 대상으로 현장과 온라인 소통을 통해 진행하였다. 전O광 대표는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었으며, 계약재배를 통하여 채소들을 생산하고(1차), 식품공장의 가공시설을 통하여 두유 및 채소액 등 건강음료식품을 가공하고(2차), 한살림, 자연드림파크 등 유통마케팅 판매 납품을 진행하고 있으며, 체험 현장견학을 진행하고 있다(3차). 전O광 대표가 생각하는 6차산업 창업에서 요구되는 기업가정신의 첫 번째는‘꿈’이라고 하였다.

즉, 사업의 목표, 비전이 중요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연구’로 획일화된 것이 아닌, 나만의 강점 무기로 차별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협력성’으로 모든 일은 혼자서 다 하지 못하며, 내가 전문가가 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네 번째 6차산업 비즈니스 전문가 인터뷰는 전북 완주에 있는 임O엽 전 군수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임O엽 전 완주 군수는 도농복합도시라는 지역특성을 고려해 농업 경제활성화를 선포하고,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 복지평가 2년 연속 대상, 2013년 최우수 마을기업 선정, 공공건축부문 대통령상 등 농업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임O엽 전 군수가 생각하는 6차산업 창업에서 요구되는 기업가정신의 첫 번째는 ‘리더의 역할’이며 특히 리더의 희생과 헌신의 필요성과 갈등조절능력을 강조하였다. 6차산업을 진행하는 시골, 농촌에는 고지식한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서로 분쟁이나 갈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리더가 그 문제를 갈등을 조절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협력성’으로 재주가 아무리 많아도 천천히 함께 맞추어가는 역량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도전정신’이며 가능성이 낮더라도, 혹여 실패를 해도 다시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다섯 번째 6차산업 비즈니스 전문가 인터뷰는 동O보감촌 RIS사업단의 신O욱 단장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신O욱 단장은 한약·약초 6차산업 전문가로써 집필한 ‘약초사전’으로 보는 동의보감’이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이 되었다. 동의보감촌 RIS사업단은 경남 산청의 지리산에서 나오는 약초를 상품화하여 유통·판매하는 6차산업 사업이다. 현재 경남 과학기술대학교에서 농학·한약자원학부 교수로써 강의와 사업으로 한방약초 6차산업 전파에 힘쓰고 있다. 신O욱 교수가 생각하는 6차산업 창업에서 요구되는 기업가정신의 첫 번째는 ‘의사소통능력’으로 생산, 가공, 유통이라는 가치사슬을 담당할 코디네이터들은 마을 내에서의 지역주민의 주도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도록 1차, 2차, 3차 산업 주체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전문가로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두 번째 핵심요소는 ‘가치창출’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지역 고유의 유무형의 포괄적 자원을 발굴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는 핵심요소는 ‘네트워크역량’으로도 농 교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상설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캠페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기반으로, 지역 인력이 가공한 물건을, 지역에서 판로를 개척하고, 외부와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역량이 필요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여섯 번째 6차산업 비즈니스 전문가 인터뷰는 경O과학기술대학교 식품과학부 조O만 교수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조O만 교수는 지리산권 약용작물 6차산업육성사업 총괄책임자로서, 산청군의 장점을 활용·약용작물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제품 및 6차산업화 연계모델 개발’이라는 과제로 2014년 농림축산식품연구 개발사업에 선정이 되어,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진행하고 있다. 약초대량생산 체계 확립, 고부가가치 제품화, 약

초 6차산업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여 산청한방약초 6차산업육성을 통해 농업·농촌 창조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O만 교수는 특히,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스타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몽고식품(주)과 공동으로 자연조미료 제품을 연구개발 중이다. 조O만 교수는 6차산업 창업에서 요구되는 기업가정신의 첫 번째는 ‘네트워크 역량’이라고 답하였다. 교수 혼자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없으며,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큰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두 번째는 ‘추진력’으로 어려움이 다가오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도자로서 사업을 힘차게 이끌어 나가는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세 번째는 ‘정보력’으로 정보화 시대이니 만큼 많은 정보보다는 꼭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가공하여 의미있는 정보를 도출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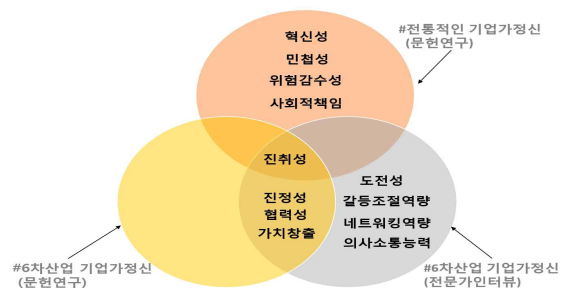
전문가 6명의 인터뷰를 통한 기업가정신 구성요소는 <표 7>과 같다.

<표 7>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6차산업 기업가정신 요소

| 구분 | 성명 | 6차산업에서 요구되는 기업가정신 (3가지) |
|-------------------|-----|-------------------------|
| 6차산업 현장 전문가 (3인) | 류O하 | 진정성, 협력성, 진취성 |
| | 오O호 | 공감소통성, 동기부여, 상생협력성 |
| | 전O광 | 비전(꿈), 연구(차별화), 협력성 |
| 6차산업 비즈니스전문가 (3인) | 임O엽 | 갈등조절역량, 협력성, 도전성 |
| | 신O욱 | 의사소통능력, 가치창출, 네트워크 역량 |
| | 조O만 | 네트워크역량, 추진력, 정보력 |

3.3 6차산업 기업가정신 지표개발

기업가 정신에 대한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조사된 전통적인 기업가정신 5가지의 핵심요소는 혁신성, 민첩성, 위험감수성, 사회적책임, 진취성이다. 또한 문헌연구를 통해 조사된 6차산업 기업가정신의 핵심요소는 4가지로 진정성, 협력성, 도전성, 가치창출이다. 또한 6차산업 현장전문가 3인과 6차산업 비즈니스 전문가 3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조사를 실시한 내용은 8가지로 진취성, 진정성, 협력성, 도전성, 가치창출, 갈등조절역량, 네트워크역량, 의사소통능력이다. <그림 3>은 문헌연구, 전문가인터뷰 과정을 진행하고 도출된 각 핵심요소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3> 6차산업 기업가정신의 지표 도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검토과정을 거쳐 중복되는 요소와 유사부분을 통합하여 핵심요소를 12가지로 정리하였으며 <표 8>에 표현하였다.

문헌연구와 인터뷰를 통해 최종 결정된 12가지의 6차산업 기업가 정신 핵심요인에 대해서 설문 문항을 구성한 후 전문가의 조언과 의견을 수렴하여 9가지(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회책임성, 진정성, 협력성, 도전성, 의사소통능력, 네트워킹역량)로 최종 결정되었다.

<표 8> 기업가 정신의 조작적 정의

| 요인 | 정의 | 연구자 |
|-----------|--|---|
| 혁신 (추구) 성 | 슈umper(Schumpeter)가 최초로 사용한 개념으로 산업 속에 신제품, 연구개발, 신 서비스, 신제품, 기술력 상승을 강력하게 추구하는 성향으로 생산기능의 변화를 혁신으로 정의하며, 가치변화보다 기능자체의 변화가 혁신의 기본 | Schumpeter (1942) Helm & Andersson (2010) Covin & Slevin(2006) |
| 민첩성 |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환경 가운데 이익을 위하여 미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예측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남들보다 한발짝 빠른, 재빨리 기회를 찾는 것 | Kirzner(1979), Lu & Ramamurthy(2011), Kim (2014). |
| 위험 감수성 | 수익률이 낮은 안정적인 사업보다 수익률이 큰 높은 위험의 사업을 선호하는 경향이다.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는 자세 | Helm & Andersson (2010) Miller(1983) Covin & Slevin(2006) Ahn(2010). |
| 사회적 책임 | 기업을 경영할 때 법률적, 윤리적, 경제적 차원에서 책임을 진다는 말이다. 시대가 아주 빠르게 변화하면서 추가된 구성요소이다. 다양한 책임을 인지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실현하며, 기업, 환경, 사회 전체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것 | Scherer & Palazzo (2011) Lee, et al. (2014). |
| 진취성 |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 진출을 모색하며, 경쟁자들보다 한 발 앞서 추진하려는 적극적 자세이다. 목표를 완수하려고 하는 의지, 월등한 성과를 내려는 의지, 경쟁자에 승리하려는 적극적인 경쟁의지, 지위 상승을 위하여 높은 강도로 도전하는 강한 자세 | Helm & Andersson (2010) Covin & Slevin(2006) Yoon(2012). |
| 진정성 | 고객, 지역, 사회에 경제적 이익과 함께 제품의 가치를 향상 시키고 책임과 소양을 다하는 태도와 자세이다. 진실됨과 정성스러운 마음과 태도라고도 볼 수 있다. 사회에 대한 공헌이 수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고객, 지역, 사회, 기업이 모두가 상생하는 역할 | Price et al. (1995) Seo(2013) |
| 협력성 | 나 혼자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장점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조직을 생각하며, 나아가 사회가 잘되어 함께 상생하고자하는 태도이다. 서로 돕는 지혜, 상생의 힘이 필요한 것 | Fine(1999) Ulrich(1998) Fujimoto (2002) Seo(2013) |
| 가치 창출 | 보이지 않는 자원들을 발견하고,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나 사회에 의미있고,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 | Bettencourt (1997) Groth(2005) Chung(2014) |
| 도전성 | 안정적인 일보다는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변화하려고 시도하며, 적극적으로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와 태도를 말한다. 열정적이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 Brown et al.(1998) Kim (2013) |

| | | |
|----------|--|--|
| 갈등 조절 역량 | 살이감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갈등조절역량이란 서로간의 갈등이 생겼을 경우, 마음을 이해하고, 설득하며 회복시킬 수 있는 역량이다. 의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된다 | Thomas & Kilman(1974) Cupach & Canary (1997) Kim(2011) |
| 네트워킹 역량 |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를 통하여 전문가들의 역량을 활용하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상생할 수 있는 역량이다. 새로운 모임에 참석하고, 외부 활동을 통하여 관계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지속적으로 확장시켜나가는 것이 중요 | Hasen(1995) Brown & Butler(1995) Chung(2015) |
| 의사소통 능력 | 조직 구성원이 다른 사람에게 의견이 전달되는 과정으로 정보의 교환과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두 사람 이상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으로서, 조직내부의 빠른 일처리와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 Duran(1983) Song(2012) |

<표 9>는 설문지의 내용 중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핵심요소 정의들을 제거하고 통합한 내용을 보인다.

<표 9> 설문지 변경사항 종합

| 차원명 | 초기 설문 | 시행 설문 | 변경 세부내역 |
|---------|-------|-------|---------------------------|
| | 문항수 | | |
| 혁신성 | 7 | 5 | |
| 민첩성 | 9 | - | 진취성과 유사하여 제외 |
| 위험감수성 | 7 | 5 | |
| 사회적책임성 | 4 | 6 | 이름변경(사회적 책임) 2개의 측정문항을 추가 |
| 진취성 | 7 | 5 | |
| 진정성 | 5 | 5 | |
| 협력성 | 15 | 5 | 팀별 협력성 부분을 제외 |
| 가치창출역량 | 15 | - | 6차산업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제외 |
| 도전성 | 10 | 5 | 유사내용통합 |
| 갈등관리역량 | 25 | - | 의사소통능력과 유사하여 제외 |
| 네트워킹 역량 | 15 | 5 | 유사내용통합 |
| 의사소통능력 | 9 | 5 | 유사내용통합 |

최종 결정된 설문내용을 사용하여 경남지역 6차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대상자 104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포는 <표 10>과 같이 구성되었다.

<표 10> 연구대상의 통계학적 특성별 분포

(n=104)

| 특성 | 구분 | n | % | 특성 | 구분 | n | % |
|---------|--------|----|------|----------|------|----|------|
| 성별 | 남자 | 65 | 62.5 | | 20대 | 3 | 2.9 |
| | 여자 | 39 | 37.5 | | 30대 | 8 | 7.7 |
| 재배작물 유형 | 식량작물 | 19 | 18.3 | 연령 | 40대 | 36 | 34.6 |
| | 시설채소 | 16 | 15.4 | | 50대 | 47 | 45.2 |
| | 과수 | 17 | 16.3 | | 60대 | 10 | 9.6 |
| | 축산 | 4 | 3.8 | 학력 | 중졸이하 | 4 | 3.8 |
| | 화훼 | 6 | 5.8 | | 고졸 | 16 | 15.4 |
| | 기타(약초) | 42 | 40.4 | | 전문대졸 | 17 | 16.3 |
| 거주 지역 | 거제시 | 3 | 2.9 | 6차 산업 인증 | 대졸 | 52 | 50.0 |
| | 김해시 | 1 | 1.0 | | 대학원 | 15 | 14.4 |
| | 밀양시 | 1 | 1.0 | | 있다 | 53 | 51.0 |
| | 사천시 | 12 | 11.5 | | 없다 | 51 | 49.0 |
| | 진주시 | 42 | 40.4 | | 특허 | 있다 | 34 |

| | | | | | | |
|-----|---|-----|---------|----------|----|------|
| 통영시 | 1 | 1.0 | (출원 등록) | 없다 | 70 | 67.3 |
| 창원시 | 3 | 2.9 | 상표 등록 | 있다 | 43 | 41.3 |
| 거창군 | 5 | 4.8 | | 없다 | 61 | 58.7 |
| 고성군 | 6 | 5.8 | 산업 유형 | 3차 | 14 | 13.5 |
| 산청군 | 5 | 4.8 | | 2차+3차 | 14 | 13.5 |
| 의령군 | 2 | 1.9 | | 1차+3차 | 37 | 35.6 |
| 창녕군 | 1 | 1.0 | | 1차+2차+3차 | 39 | 37.5 |
| 하동군 | 8 | 7.7 | 법인 형태 | 농업회사법인 | 17 | 16.3 |
| 함안군 | 1 | 1.0 | | 영농조합법인 | 22 | 21.2 |
| 함양군 | 8 | 7.7 | | 개인사업자 | 38 | 36.5 |
| 합천군 | 3 | 2.9 | | 예비창업자 | 16 | 15.4 |
| 울주군 | 2 | 1.9 | | 기타 | 11 | 10.6 |

IV. 연구 결과

4.1 검사지의 타당도, 신뢰도 검정결과

6차산업 기업가정신 지표개발을 위하여 조사된 검사지에 대해 타당성(Validity)과 신뢰도(Reliability) 검사를 실시하였다.

타당성 검사는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 판별 타당성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탐색적인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하여 6차산업 기업가정신의 핵심요인을 추출하고, 탐색적인 요인분석을 위해 필요한 표본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KMO(Kaiser Meyer-Olkin Measure)의 표준적합도 평가의 기준인 0.7이상이어야 하며, Bartlett의 구형성은 유의하여야 실시한 요인분석이 적합함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추출된 각 요인의 신뢰도를 Cronbach's Alpha 계수를 통하여 측정하여 신뢰도를 확인하며 사회과학에서는 0.6이상이면 통계적으로 해당검사가 신뢰한 것으로 본다.

최종 결정된 지표내용을 중심으로 6차산업 기업가정신의 요구수준에 대해서 각 요인별 지표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결과 얻어진 지표들은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잘 대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이라고 한다. 이는 주로 전문가나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검정되어진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지표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첫 단계로서 기존의 문헌들에 대한 통합적 고찰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관련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지표 요소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 목적인 6차산업 기업가정신 지표의 개발에 적합하도록 정리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하여 항목들을 선별하고 재정리하였다. 초기 설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에 의해 수정을 실시하였다. 초기 설문지는 12개의 차원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중 부적절 변인들은 제외하고, 유사한 내용은 서로 통합하여 최종 9개의 요인을 선정하였다. 이 절차를 통하여 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하위차원들의 내용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1> 탐색적 요인분석

| 문항 번호 | 요인1 진정성 | 요인2 네트워킹 역량 | 요인3 사회적 책임 | 요인4 협력성 | 요인5 진취성 | 요인6 위험 감수성 | 요인7 혁신성 | 요인8 의사 소통 능력 | 요인9 도전성 |
|--------|--------------|----------------|---------------|--------------|--------------|---------------|--------------|-----------------|--------------|
| 53 | 0.805 | 0.107 | 0.132 | 0.24 | 0.075 | 0.016 | 0.181 | 0.076 | 0.204 |
| 54 | 0.795 | 0.111 | 0.183 | 0.279 | 0.181 | 0.008 | 0.142 | 0.114 | 0.101 |
| 52 | 0.793 | 0.191 | 0.157 | 0.239 | 0.151 | 0.049 | 0.127 | 0.186 | 0.168 |
| 51 | 0.771 | 0.171 | 0.209 | 0.283 | 0.104 | 0.025 | 0.141 | 0.193 | 0.122 |
| 55 | 0.735 | 0.159 | 0.222 | 0.231 | 0.260 | 0.047 | 0.161 | 0.120 | 0.041 |
| 92 | 0.120 | 0.805 | 0.131 | 0.238 | 0.155 | 0.062 | 0.074 | 0.250 | 0.119 |
| 91 | 0.216 | 0.783 | 0.068 | 0.155 | 0.108 | 0.068 | 0.121 | 0.210 | 0.187 |
| 93 | 0.155 | 0.777 | 0.113 | 0.104 | 0.100 | 0.018 | 0.174 | 0.183 | 0.164 |
| 94 | 0.119 | 0.748 | 0.262 | 0.109 | 0.237 | 0.160 | 0.155 | 0.098 | 0.133 |
| 95 | 0.080 | 0.738 | 0.299 | 0.241 | 0.159 | 0.099 | 0.176 | -0.051 | 0.108 |
| 44 | 0.151 | 0.148 | 0.741 | 0.056 | 0.268 | 0.163 | 0.125 | 0.117 | 0.129 |
| 43 | 0.170 | 0.196 | 0.740 | 0.192 | 0.213 | 0.264 | 0.144 | 0.130 | 0.090 |
| 45 | 0.128 | 0.173 | 0.670 | 0.138 | 0.206 | 0.130 | 0.183 | 0.155 | 0.215 |
| 42 | 0.294 | 0.137 | 0.648 | 0.107 | 0.164 | 0.280 | 0.187 | 0.248 | 0.078 |
| 46 | 0.200 | 0.357 | 0.645 | 0.258 | 0.140 | 0.137 | 0.094 | 0.03 | 0.224 |
| 41 | 0.280 | 0.072 | 0.593 | 0.139 | 0.179 | 0.291 | 0.205 | 0.256 | 0.167 |
| 65 | 0.234 | 0.137 | 0.181 | 0.767 | 0.104 | 0.040 | 0.070 | 0.209 | 0.142 |
| 64 | 0.288 | 0.170 | 0.185 | 0.740 | 0.089 | 0.160 | 0.150 | 0.153 | 0.101 |
| 62 | 0.329 | 0.187 | 0.102 | 0.738 | 0.207 | 0.114 | 0.152 | 0.237 | 0.054 |
| 63 | 0.248 | 0.194 | 0.080 | 0.714 | 0.306 | -0.051 | 0.144 | 0.098 | 0.185 |
| 61 | 0.322 | 0.245 | 0.145 | 0.650 | 0.079 | 0.188 | 0.072 | 0.185 | 0.053 |
| 23 | 0.123 | 0.155 | 0.234 | 0.044 | 0.800 | 0.159 | 0.108 | 0.136 | -0.07 |
| 24 | 0.152 | 0.034 | 0.175 | 0.226 | 0.689 | 0.144 | 0.318 | -0.058 | 0.111 |
| 22 | 0.240 | 0.147 | 0.166 | 0.189 | 0.683 | -0.035 | 0.278 | 0.117 | 0.139 |
| 21 | 0.182 | 0.237 | 0.162 | 0.173 | 0.677 | 0.093 | 0.221 | 0.115 | 0.122 |
| 25 | 0.094 | 0.254 | 0.196 | 0.159 | 0.663 | 0.119 | 0.304 | 0.083 | 0.122 |
| 33 | -0.017 | 0.122 | 0.141 | 0.012 | -0.049 | 0.830 | 0.110 | 0.079 | -0.035 |
| 32 | -0.073 | 0.062 | 0.252 | 0.035 | -0.032 | 0.810 | 0.097 | -0.039 | 0.050 |
| 35 | 0.079 | 0.028 | 0.053 | 0.152 | 0.101 | 0.788 | 0.014 | 0.162 | 0.192 |
| 34 | 0.087 | -0.002 | 0.094 | 0.095 | 0.277 | 0.726 | 0.042 | 0.038 | 0.212 |
| 31 | 0.064 | 0.113 | 0.237 | 0.006 | 0.343 | 0.589 | 0.150 | 0.09 | 0.154 |
| 13 | 0.138 | 0.135 | 0.200 | 0.045 | 0.181 | 0.108 | 0.716 | 0.141 | 0.121 |
| 12 | 0.157 | 0.161 | 0.120 | 0.182 | 0.177 | 0.111 | 0.712 | 0.008 | 0.102 |
| 15 | 0.059 | 0.098 | 0.126 | 0.058 | 0.321 | 0.027 | 0.697 | 0.144 | 0.195 |
| 11 | 0.266 | 0.190 | 0.068 | 0.131 | 0.060 | 0.200 | 0.693 | 0.038 | 0.030 |
| 14 | 0.068 | 0.057 | 0.163 | 0.079 | 0.370 | 0.021 | 0.690 | 0.230 | 0.067 |
| 82 | 0.233 | 0.164 | 0.071 | 0.350 | 0.103 | 0.081 | 0.132 | 0.694 | 0.207 |
| 81 | 0.195 | 0.176 | 0.153 | 0.327 | 0.168 | 0.027 | 0.177 | 0.656 | 0.238 |
| 83 | 0.181 | 0.274 | 0.363 | 0.050 | 0.017 | 0.298 | 0.132 | 0.555 | 0.024 |
| 84 | 0.114 | 0.193 | 0.395 | 0.221 | 0.087 | 0.091 | 0.193 | 0.551 | 0.042 |
| 85 | 0.224 | 0.310 | 0.319 | 0.336 | 0.156 | 0.124 | 0.131 | 0.543 | 0.072 |
| 74 | 0.290 | 0.240 | 0.176 | 0.145 | 0.213 | 0.104 | 0.046 | 0.173 | 0.655 |
| 73 | 0.163 | 0.278 | 0.244 | 0.173 | 0.285 | 0.112 | 0.172 | 0.150 | 0.621 |
| 72 | 0.134 | 0.139 | 0.158 | 0.092 | -0.165 | 0.401 | 0.258 | 0.008 | 0.618 |
| 71 | 0.054 | 0.114 | 0.205 | 0.193 | -0.026 | 0.323 | 0.280 | 0.039 | 0.602 |
| 75 | 0.232 | 0.316 | 0.098 | 0.053 | 0.313 | 0.062 | 0.025 | 0.339 | 0.589 |
| 고유치 | 4.494 | 4.333 | 4.216 | 3.989 | 3.984 | 3.81 | 3.588 | 2.788 | 2.686 |
| 분산의% | 9.769 | 9.419 | 9.165 | 8.672 | 8.662 | 8.283 | 7.799 | 6.062 | 5.838 |
| 누적분산의% | 9.769 | 19.188 | 28.354 | 37.026 | 45.688 | 53.97 | 61.769 | 67.831 | 73.669 |
| Alpha | 0.944 | 0.869 | 0.921 | 0.918 | 0.898 | 0.863 | 0.864 | 0.924 | 0.841 |

다음으로는 평가차원들의 항목 간 내적 일관성에 따라 설명 가능한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하나의 측정변수가 원래는 다를 것으로 생각되어 독립적인 것인가를 판단하는 판별타당성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지표 개발을 위해 사용된 요인분석의 결과에서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검증될 수 있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상관관계가 높은 항목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주는 동시에 서로 다른 요인들 간에 상호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요인 내 항목들의 집중타당성이 유지되고 요인 간 판별타당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간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량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채택하였다. 요인 적재량은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므로 각 변수들은 요인적재량이 가장 높은 요인에 속하게 된다. 또한 고유값은 특정 요인에 적재된 모든 변수의 적재량을 제곱하여 합한 값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 요인에 관련된 표준화된 분산(Standardized Variance)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요인과 측정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 요인적재치는 0.5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조건을 기준으로 검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표 11>에서 보이는 것 처럼 이론연구와 인터뷰를 통해 설정된 9개의 요인은 모두 잘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적재치가 최소 0.543으로 모든 요인이 충족되었다. 개별 문항 중 72번 문항이 부적재량이 0.4이상으로 높았으나 다른 요인들은 모두 요인 적재치가 0.4이하 수준이었다. 전체 9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73.66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으로 추출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각 요인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Cronbach's Alpha계수를 측정된 결과, 혁신성은 .864, 진취성은 .898, 위험감수성은 .863, 사회적 책임은 .921, 진정성은 .944, 협력성은 .918, 도전성은 .841, 의사소통능력은 .924, 네트워킹 역량은 .869로 나타났으며 전체 검사지의 신뢰도는 0.965로 높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KMO의 표준적합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지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KMO=.914, Bartlett의 근사 카이제곱=8170.222, df=1035, p=.000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6차산업의 기업가정신의 검사지는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결과를 중심으로 Amos 18.0을 이용하여 확인적인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표준화 회귀계수가 0.7이상인 측정변인을 중심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적합도 지수는 $\chi^2=1862.755$ (p=.000), GFI=.891 AGFI=.836 RMR=.043 NFI=.918 CFI=.963 RMSEA=.076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 지수는 일반적으로 GFI, AGFI, CFI, NFI 등은 0.9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며, RMR은 0.5이하, RMSEA은 0.08이하이면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모델의 적합도는 GFI, AGFI가 0.8로 약간 낮은 수치가 보이나 NFI, CFI, RMSEA 등이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타당성 검정을 위하여 측정 항목의 구성개념에 대한 요인적재치(0.714 이상) 및 평균분산추출값(AVE, 0.724이상)으로 모두 0.5이상을 넘었으며, Cronbach's Alpha(0.841 이상)은 모두 0.6이상으로 모든 조건을 만족시켰다(<표 12>).

<표 12>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타당성 및 내적 일관성 분석

| | | 비표준화 경로계수 | S.E | 표준화 경로계수 | C.R | 개념 신뢰도 | AVE | Alpha |
|----------------|----|--------------|-------|-------------|-----------|-----------|------|-------|
| 진정성 | 51 | 0.948 | 0.072 | 0.882 | 13.185*** | .970 | .868 | .944 |
| | 52 | 0.967 | 0.068 | 0.911 | 14.191*** | | | |
| | 53 | 0.949 | 0.078 | 0.851 | 12.205*** | | | |
| | 54 | 1.000 | - | 0.891 | - | | | |
| | 55 | 0.911 | 0.087 | 0.784 | 10.418*** | | | |
| 네트 워킹 역량 | 91 | 0.974 | 0.110 | 0.837 | 8.845*** | .950 | .793 | .869 |
| | 92 | 0.994 | 0.107 | 0.872 | 9.255*** | | | |
| | 93 | 0.891 | 0.107 | 0.794 | 8.331*** | | | |
| | 94 | 0.930 | 0.118 | 0.759 | 7.911*** | | | |
| | 95 | 1.000 | - | 0.761 | - | | | |
| 사회적 책임 | 41 | 0.855 | 0.071 | 0.867 | 12.013*** | .956 | .758 | .921 |
| | 42 | 0.936 | 0.084 | 0.831 | 11.094*** | | | |
| | 43 | 1.000 | - | 0.875 | - | | | |
| | 44 | 0.744 | 0.077 | 0.767 | 9.672*** | | | |
| | 45 | 0.678 | 0.082 | 0.795 | 9.695*** | | | |
| | 46 | 0.809 | 0.081 | 0.781 | 9.953*** | | | |
| 협력성 | 61 | 0.823 | 0.095 | 0.748 | 8.642*** | .958 | .822 | .918 |
| | 62 | 0.949 | 0.083 | 0.903 | 11.420*** | | | |
| | 63 | 0.734 | 0.087 | 0.737 | 8.473*** | | | |
| | 64 | 1.000 | - | 0.825 | - | | | |
| | 65 | 0.869 | 0.084 | 0.846 | 10.348*** | | | |
| 진취성 | 21 | 0.798 | 0.096 | 0.734 | 8.331*** | .950 | .792 | .898 |
| | 22 | 0.805 | 0.092 | 0.760 | 8.741*** | | | |
| | 23 | 0.966 | 0.104 | 0.791 | 9.252*** | | | |
| | 24 | 1.000 | - | 0.833 | - | | | |
| | 25 | 0.943 | 0.104 | 0.779 | 9.056*** | | | |
| 위험 감수성 | 31 | 0.620 | 0.106 | 0.883 | 8.330*** | .956 | .813 | .863 |
| | 32 | 0.971 | 0.113 | 0.826 | 8.608*** | | | |
| | 33 | 1.000 | - | 0.801 | - | | | |
| | 34 | 0.605 | 0.095 | 0.729 | 7.674*** | | | |
| | 35 | 0.859 | 0.117 | 0.714 | 7.358*** | | | |
| 혁신성 | 11 | 0.872 | 0.101 | 0.749 | 7.416*** | .940 | .758 | .864 |
| | 12 | 0.850 | 0.124 | 0.721 | 6.881*** | | | |
| | 13 | 1.000 | - | 0.717 | - | | | |
| | 14 | 0.970 | 0.137 | 0.740 | 7.055*** | | | |
| | 15 | 0.915 | 0.132 | 0.727 | 6.932*** | | | |
| 의사 소통 능력 | 81 | 1.000 | - | 0.767 | - | .948 | .786 | .924 |
| | 82 | 0.961 | 0.113 | 0.812 | 8.530*** | | | |
| | 83 | 0.736 | 0.109 | 0.769 | 7.055*** | | | |
| | 84 | 0.985 | 0.126 | 0.750 | 7.787*** | | | |
| | 85 | 0.990 | 0.115 | 0.816 | 8.581*** | | | |
| 도전성 | 71 | 0.911 | 0.102 | 0.814 | 7.980*** | .926 | .724 | .841 |
| | 72 | 0.888 | 0.110 | 0.714 | 6.490*** | | | |
| | 73 | 0.943 | 0.121 | 0.722 | 7.803*** | | | |
| | 74 | 1.000 | - | 0.810 | - | | | |
| | 75 | 0.792 | 0.106 | 0.796 | 7.509*** | | | |

| 모형의 적합도 | $\chi^2(p)$ 1862.755 (.000) | χ^2/df <2.0 | RMR <.05 | GFI >.9 | AGFI >.9 | RMSEA <.08 | NFI >.9 | TLI >.9 | CFI >.9 |
|------------|-----------------------------------|---------------------|-------------|------------|-------------|---------------|------------|------------|------------|
| | | 1.955 | .043 | .891 | .836 | .076 | .918 | .943 | 963 |

판별 타당도에 대한 검증을 위해 각 구성개념의 AVE값이 상관관계수 제곱값보다 높이가 나타나 판별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문항의 내적 일관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표 13>).

<표 13> 잠재변수의 판별타당성 분석

| | 진정성 | 네트워킹역량 | 사회적책임 | 협력성 | 진취성 | 위험감수성 | 혁신성 | 의사소통능력 | 도전성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1) | .868 | .063 | .345 | .254 | .239 | .053 | .321 | .293 | .188 |
| (2) | .251 | .793 | .065 | .097 | .031 | .126 | .041 | .027 | .075 |
| (3) | .587 | .255 | .758 | .357 | .306 | .270 | .224 | .199 | .246 |
| (4) | .504 | .311 | .597 | .822 | .250 | .109 | .300 | .198 | .339 |
| (5) | .489 | .177 | .553 | .500 | .792 | .050 | .282 | .303 | .173 |
| (6) | .231 | .355 | .519 | .331 | .225 | .813 | .058 | .106 | .238 |
| (7) | .567 | .202 | .474 | .547 | .531 | .241 | .758 | .286 | .219 |
| (8) | .541 | .166 | .446 | .445 | .551 | .326 | .535 | .786 | .179 |
| (9) | .433 | .275 | .496 | .582 | .416 | .488 | .423 | .724 | |

대각선 아래 : 상관관계수, 대각선 위 : (상관관계수)², 대각선 : AVE

이상의 검사지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사결과를 중심으로 최종 결정된 6차 산업 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 지표의 최종 설문내용 구성은 <표 14>와 같다.

6차 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인지하는 6차 산업 기업가의 기업가 정신수준은 평균 4.12로 매우 중요한 지표임을 알 수 있다. 각 요인별로 수준을 살펴보면, 혁신성은 평균 4.32, 진취성은 평균 4.38, 위험감수성은 평균 3.56, 사회적 책임은 평균 4.04, 진정성은 평균 4.33, 협력성은 평균 4.15, 도전성은 평균 4.05, 의사소통능력은 평균 4.18, 네트워킹은 평균 4.07로 나타났다. 특히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험감수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은 4점 이상으로 매우 필요한 기업가의 정신 역량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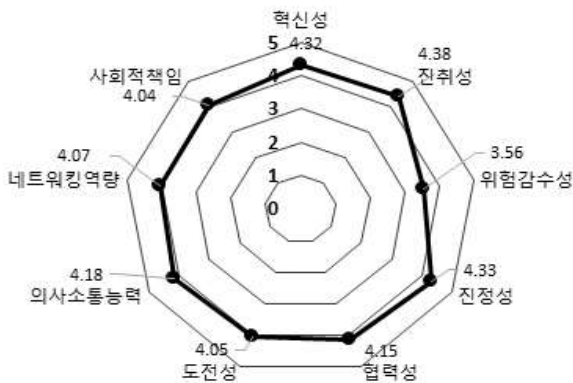
그러나 위험감수성은 다른 지표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9각형의 모양이 다소 일그러진 모습을 하고 있으며 다른 요인에 비해 위험감수성은 평균 3.56수준으로 매우절실히 요구되는 수준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장 요구되는 요인은 진취성, 혁신성, 진정성으로 나타났다.

<표 1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업가정신 지표 중 혁신성은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평균 4.45), 위험 감수성은 “새로운 사업 분야에 적극 진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평균3.89), 사회적 책임은 “고용창출을 통해서 사회의 경제적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평균 4.13), 진취성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야 한다.”(평균 4.47), 진정성은 “진심에서 우리나라의 서비스를 해야 한다.”(평균 4.35), “자신의 내면에서 우리나라의 서비스를 해야 한다.”(평균 4.35), 협력성은 “우리 조직에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평균 4.30), 도전성은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을 극복할 자신이 있어야 한다.”(평균 4.32), 네트워킹역량은 “업무와 관련된 세미나나 워크숍에 자주 참석해야 한다.”(평균 4.17), 의사소통능력은 “상대방의 주장과 행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평균 4.22)가 가장 높은 필요성을 나타내는 내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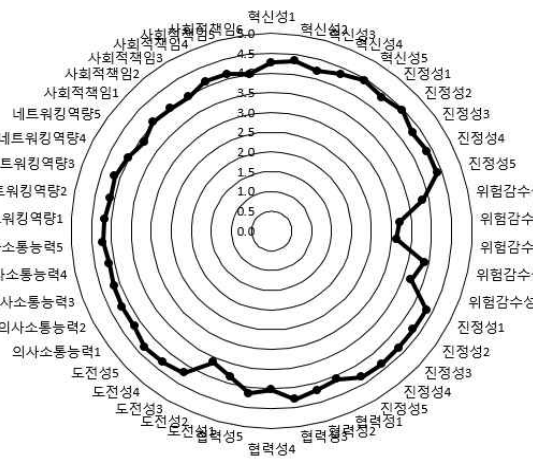
<표 14> 최종 6차산업 기업가정신 지표의 인식수준

| 변인 | 설문내용 | M | SD |
|--------|------------------------------------|------|------|
| 혁신성 | 1. 성장과 발전이 필요하다. | 4.27 | 0.61 |
| | 2. 신제품 개발이나 끊임없는 변화가 필요하다. | 4.35 | 0.54 |
| | 3. 최신 경영기법 도입이 필요하다. | 4.21 | 0.63 |
| | 4. 창의적 마케팅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 4.32 | 0.6 |
| | 5.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 4.45 | 0.57 |
| | 전 체 | 4.32 | 0.46 |
| 위험감수성 | 1. 위험을 무릅쓰고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 3.86 | 0.90 |
| | 2. 위험이 높더라도 수익이 큰 사업에 도전해야 한다. | 3.21 | 0.99 |
| | 3. 약간의 무모하더라도 도전해야 한다. | 3.13 | 1.05 |
| | 4. 새로운 사업 분야에 적극 진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3.89 | 0.81 |
| | 5. 아이템에 대한 확신이 들면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 3.69 | 1.02 |
| | 전 체 | 3.56 | 0.75 |
| 사회적 책임 | 1.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 | 4.04 | 0.70 |
| | 2.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공익사업을 해야 한다. | 3.99 | 0.79 |
| | 3. 기부 협찬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 3.97 | 0.81 |
| | 4. 고용창출을 통해서 사회의 경제적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 | 4.13 | 0.68 |
| | 5. 지역공동체의 필요를 잘 파악해야 한다. | 4.12 | 0.69 |
| | 6. 지역행사에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 4.01 | 0.73 |
| | 전 체 | 4.04 | 0.62 |
| 진취성 | 1. 시장흐름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4.36 | 0.61 |
| | 2.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 4.47 | 0.59 |
| | 3. 경쟁사의 움직임을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 | 4.30 | 0.68 |
| | 4. 신제품 개발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 | 4.37 | 0.67 |
| | 5. 끊임없이 틈새시장을 찾고 신속하게 공략해야 한다. | 4.39 | 0.67 |
| | 전 체 | 4.38 | 0.53 |
| 진정성 | 1. 진심에서 우리나라의 서비스를 해야 한다. | 4.35 | 0.65 |
| | 2. 정성을 다해 서비스를 해야 한다. | 4.32 | 0.64 |
| | 3. 정직하게 서비스를 해야 한다. | 4.33 | 0.67 |
| | 4. 자신의 내면에서 우리나라의 서비스를 해야 한다. | 4.35 | 0.68 |
| | 5. 인간적인 느낌이 나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 | 4.33 | 0.70 |
| | 전 체 | 4.33 | 0.60 |
| 협력성 | 1. 공동목표에 참여하고 따라야 한다. | 4.09 | 0.67 |
| | 2. 동료들을 배려해야 한다. | 4.19 | 0.64 |
| | 3. 우리 조직에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 4.30 | 0.61 |
| | 4. 조직이 어려운 상황일 때 희생해야 한다. | 4.02 | 0.74 |
| | 5. 동료의 필요를 보면 도와줘야 한다. | 4.16 | 0.62 |
| | 전 체 | 4.15 | 0.56 |
| 도전성 | 1. 안정적인 일보다 개척하고 변화하는 일을 해야 한다 | 3.82 | 0.8 |
| | 2. 경험이 없는 새로운 업무에 도전해야 한다 | 3.62 | 0.93 |
| | 3. 매사에 매우 정열적으로 일해야 한다 | 4.20 | 0.70 |
| | 4. 주어진 일의 어려움이 크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 4.29 | 0.66 |
| | 5.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을 극복할 자신이 있어야 한다 | 4.32 | 0.61 |
| | 전 체 | 4.05 | 0.55 |
| 네트워킹역량 | 1. 업무와 관련된 세미나나 워크숍에 자주 참석해야 한다. | 4.17 | 0.67 |
| | 2. 업무와 관련된 협회나 조직 활동에 자주 참석해야 한다. | 4.10 | 0.66 |
| | 3. 다양한 사람들에게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구해야 한다. | 4.15 | 0.65 |
| | 4. 업무상 만난 사람들에게 자주 연락해야 한다. | 4.02 | 0.71 |
| | 5. 다양한 친교 모임에 자주 참석해야 한다. | 3.89 | 0.76 |
| | 전 체 | 4.07 | 0.59 |
| 의사소통능력 | 1.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4.18 | 0.63 |
| | 2. 상대방의 의견에 경청하고, 반응해야 한다. | 4.19 | 0.58 |
| | 3. 자유롭게 나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 4.17 | 0.63 |
| | 4.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조정해야 한다. | 4.13 | 0.64 |
| | 5. 상대방의 주장과 행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4.22 | 0.59 |
| | 전 체 | 4.18 | 0.49 |
| | 전 체 | 4.12 | 0.42 |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각 차원의 세부내용들은 비슷한 수준을 가지지만 도전성 중 “안정적인 일보다 개척하고 변화하는 일을 해야 한다”(평균 3.82), “경험이 없는 새로운 업무에 도전해야한다”(평균 3.62)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협력성 중 “공동목표에 참여하고 따라야한다.”(평균 4.09), “조직이 어려운 상황일 때 희생해야한다.”(평균 4.02)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전체 기업가 정신 차원에서 가장 낮은 요구수준을 나타낸 위험감수성의 경우 특히 “위험이 높더라도 수익이 큰 사업에 도전해야한다.”(평균3.21), “약간은 무모하더라도 도전해야한다.”(평균3.13)에 대한 요구수준이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그림 4> 6차산업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기업가 정신 수준



<그림 5> 기업가 정신 각 차원별 세부내용별 요구수준

V. 결론

5.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6차산업에서 요구되는 기업가정신의 지표를 개발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전통적인 창업에서의 기업가정신과 6차산업 창업에서 필요한 기업가정신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6차산업 전문가 6인의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총 12가지의 지표를 1차 도출하였다. 전문가의 검토 및 조언으로 12가

지 중 9가지의 지표를 2차 수정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후, 신뢰성 검정과 타당성 검정을 통하여 요인 분석 결과 9가지의 핵심요인 항목이 모두 요건 충족되어 최종 지표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6차산업에서 요구되는 기업가정신은 혁신성, 위험감수성, 사회적 책임, 진취성, 진정성, 협력성, 도전성, 의사소통능력, 네트워킹역량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 기업가정신의 핵심요소 중 혁신성, 위험감수성, 사회적책임에 6차산업 기업가정신에서 진취성, 진정성, 협력성, 도전성, 의사소통능력, 네트워킹역량의 요소가 추가된 것으로 6차산업 창업이 전통적 창업보다 더 다양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6차산업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 의사소통능력, 진취성, 진정성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으며, 위험감수성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용별로도 도전성 중 “경험이 없는 새로운 업무에 도전해야한다”, 위험감수성 중 “위험이 높더라도 수익이 큰 사업에 도전해야한다.”, “약간은 무모하더라도 도전해야한다.” 등에 대해서 비교적 낮은 요구도를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보다 확실한 정보력이나 확실성이 주어져야 함을 나타내며 위험감수성의 “아이템에 대한 확신이 들면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요구도가 높음을 보면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6차산업 종사자들은 기업가정신의 지표들이 필요하며, 기업가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6차산업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화 추진능력과 사람들과 더 협업하고, 관계를 확장시켜나가는 네트워킹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나 컨설팅,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기획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기존의 6차산업 진행 주체들의 기업가정신을 진단하고 개별적 필요에 맞는 맞춤형 역량개발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2 연구의 한계

6차산업이라는 이름은 최근에 나왔지만, 이미 예전부터 농촌은 융·복합으로 서로 협업하여 진행해 오던 삶이다.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으로 농촌경제 부활이 기대되고 있는 시점에 6차산업으로 제2의 창업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번 6차산업 기업가정신 지표개발 연구는 국내 환경에 맞추어 진행하였으며, 특히 경남 지역 농민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기에 전국 농민과 모든 6차산업자를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6명의 전문가로 한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기에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답변이라고 하기에 한계가 있다. 보다 많은 전문가와 6차산업종사자와의 교류를 통하여 연구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향후과제로 제시한다.

REFERENCE

- Ahn, K. S.(2010), *A Study on the Effects of Managerial Environment and Entrepreneurship on Business Management Performances*, Master's thesis, Hansung University.
- Bae, J. T. & Cha, M. S.(2009), Expansion and activation of entrepreneurship, *The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31(1), 109-128.
- Bagozzi, R. P.(1994), *Measurement in Marketing Research: Basic Principles of Questionnaire Design*, in R. P. Bagozzi (Ed), *Principles of Marketing Research*, Cambridge: Blackwell Business.
- Bettencourt, L. A.(1997), Customer Voluntary Performance: Customers as Partners in Service Delivery, *Journal of Retailing*, 73(3), 383-406.
- Brown, B. & Butler, J. E.(1995), Competitors as Allies: A Study of the Entrepreneurial Networks in the US Wine Industry,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3(3), 57-66.
- Brown, S. P., Cron, W. L. & Slocum, J. W., Jr(1998), Effects of trait competitiveness and perceived intraorganizational competition on salesperson goal setting and performance, *Journal of Marketing*, 62(4), 88-99.
- Chung, J. Y.(2014), *An Impact of CSV(Creating Shared Value) in the Hotel Enterprise on Corporate Image, Reliability, and the Customer's Consumption Value*, Master's thesis, Youngsan University.
- Chung, S.(2015), *The effects of networking behavior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career commitment :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plateau*,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Covin, J. G. & Slevin, D.(2006), P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Firm Behavior, *Entrepreneur: Theory and Practice*, 16(1), 7-24.
- Cupach, W. & Canary, D. J.(1997), *Competence in interpersonal conflict*, NY: Mcgraw-hill.
- Dollinger, M. J.(1995), *Entrepreneurship, Strategies and Resources*, Boston, Irwin.
- Duran, R. L.(1983), Communicative adaptability: A Measure of Social communicative competence, *Communication Quarterly*, 31(4), 320-326.
- Fine, C. H.(1999), *Industry Clockspeed: Measurement and Operational Implication*, Haim Mendelson.
- Fujimoto, Takahiro(2002), *Architectures and Capabilities in european, American, and Japanese Auto Firms*, University of Tokyo, GERPISA 2002, Paris, 2002.
- Gartner, W. B. & Mitchell, T.R. & Vesper, K. H.(1992), Acting as if Differentiating Entrepreneurial from Organizational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3), 13-31.
- Groth, M.(2005), Customers as Good Soldier: Examining Citizenship Behaviors in Internet Service Deliveries, *Journal of Management*, 31(1), 7-27.
- Hasen, E. L.(1995), Entrepreneurial Network and New Organization Grow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9. Summer, 7-19.
- Helm, S. T. & Andersson, F. O.(2010), Beyond taxonomy: An empirical validation of social entrepreneurship in the nonprofit sector,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20(3), 259-276.
- Kim, J. H.(2011), *The Effects of Leader's Conflict Management Styles on Follower's Job Satisfaction -Focused on Moderating Effects of Sub-Leader's Social Reputation Recognition*,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 _____ (2013), *A Study on the Impact on the Success Confidence of the Psychological Capital, and the Challenge of Hospitality Workers in Korea*, Doctoral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 Kim, J. K.(2014), *Relationships between the design factors of organizational agilit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 including moder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integration mechanisms*, Maste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 Kim, J. M. & Park, J. P.(2011), A study on the Model of Entrepreneurship Index, KOSBI.
- Kim, T. G. & Heo, J. N.(2011), Creation of Value-added Farming in line with the Sixth Industry, *KREI Report R*, 653-654.
- Kirzner, I. M. K.(1979), *Perception, Opportunity and Profit: Studies in The Theory of Entrepreneurship*,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won, Y. D.(2014), 6th industrialization and initiatives in agriculture, *The Gyeongnam Development*, (133), 57-70.
- Lee, C. W., Han, Y. J., Kim, D. H., Seo, Y. M., Lee, K. W., Lee, H. W. & Lee, Y. D.(2014), *Understanding of Entrepreneurship*, SMBA & Korea Entrepreneurship Foundation, Seoul.
- Lee, Y. J., Chung, K. C., Jang, B. Y., Kim, S. W., Lee, M. K., Kim, Y. H., Kim, S. K. Chung, W. J. & Lee, S. H.(2012), *Vitalization of Technology-based Startup by Inspiring entrepreneurship*, STEPI.
- Lu, Y. & Ramamurthy, K.(2011), Understanding the Link between Information Technology capability and Organizational Agility: *An Empirical Examination*, *Mis Quarterly*, 35(4), 931-954.
- Lumpkin, G. T. & Dess, G. G.(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s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 135-172.
- MAFRA(2013), *Startup Manual for 6th Industry*, Sejong City.
- Miller, D.(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Morris, M. H., & Paul, G. W.(1987),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Marketing in Established Firm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3), 247-259.
- Oliva, T. A. & Reidenbach, R. E.(1987), *Extensions of Bagozzi's Holistic Contrual*, in Philosophical and Radical Thought in Marketing, (eds) A. Fuat Frat, Nikhilesh Dholakia, and Richard P. Bagozzi.
- Park, J. H. & Ahn, T. U.(2016), A Study on the Influence of Young Entrepreneurs's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preparation upon the Entrepreneurial Performance: Centered on Mediated Effect of Entrepreneurial infra system using,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1), 39-47.
- Price, L. L., Eric A, & Patrick T.(1995), Going to Extremes: Managing Service Encounters and Assessing Provider Performance, *Journal of Marketing*, 59(April), 83-97.
- Rocha, H. O.(2004),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The Role of Clusters, *Small Business Economics*, 23, 363-400.

- Scherer, A. G. & Palazzo, G.(2011), The New Political Role of Business in a Globalized World: A Review of a New Perspective on CSR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Firm, Governance, and Democracyjoms,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48(4), 1467-6486.
- Schumpeter, J. A.(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4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2d ed.* New York: Harper.
- Seo, Y. J.(2013), *The Convergence revolution of 6 Primary Industry*, HNcom.
- Seo, Y. J., Park, J. W., Han, S. Y., Hwang, D. Y. & Yang, J. H.(2013), 6th Industry Management Body Develop Managerial and Technical Level Metrics: by Applying AHP Analysi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4), 177-191.
- Sharma, P. & Chrisman, J.(1999), Toward a Reconciliation of the Definitional Issues in the Field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3, 11-27.
- Shigenori, K. & Lee, B. O.(2012), 6th industrial developments and challenges in Japan,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Report(143).
- SMBA(2012), *Study on university entrepreneurship centers Activation Plan*, Daejeon city.
- Song, K. H.(2012), *The Effect of Employee'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Communication Satisfaction on Job Satisfaction*,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 Stevenson, H. H. & Jarillo, J. C.(1990), A Paradigm of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Managem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1(5), 17-27.
- Stevenson, H. H., Michael J. R. & Grousbeck, H. I.(1989), *New Business Ventures and the Entrepreneur*, Homewood, IL: Richard D. Irwin.
- Thomas, K. W. & Kilman, R. H.(1974), *Thomas-Kilman Conflict Mode Instrument*, Tuxedo, NY: Xicom
- Timmons, J. A.(1994),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Fourth edition, Mc-Graw-Hill, Boston.
- Ulrich, D.(1998), *Intellectual Capital-Competence Commitment*, Sloan Management Review, 15-26.
- Yoon, B. J.(2012),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spirit and motivation-driven entrepreneurship on establishment of new business by undergraduate student*,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 Zahra, S. A.(1991), Predictors and Financial Outcomes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6, 258-282.

Development of Index about the sixth Industrial Entrepreneurship*

Kim, Seong Gyu**
Park, Sang Hyeok***
Park, Jeong Seon****
Seol, Byung Moon*****
Son, Eun I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index about the sixth industrial entrepreneurs to establish the spirit and measuring the sixth industrial entrepreneurship for groups successfully led to the sixth industry of agriculture, which is actively being conducted in recent years aimed at rural stimulate the economy. Enlighten the value of rural resources, production, processing, in a sixth industry establishment that has a characteristic of fusion distribution and tourism in addition to the elements of the entrepreneurship that has been emphasized in the traditional establishment, the more diverse entrepreneurship element has been requested.

In this study, to derive the traditional entrepreneurship of the components and the sixth industry entrepreneurship component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rough interviews with experts of the sixth industry, an important element of the entrepreneurship that is required in the field It was derived. Based on the derived results, set the index of the sixth industry entrepreneurship, it was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sixth industry workers. Through analysis of the navigation factors, to evaluate the measurement and indicators of relevance, factors that have been set through the results literature study and interview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t was found that has been rationally constr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education and consulting for the activation of the sixth industry, would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such as in the planning of education programs for whom decide to go back to the countryside(Agro migration).

In addition, to diagnose the entrepreneurship of a conventional sixth industry progress mainly, it is expected to be able to help you to proceed with the custom capability development that meets the individual needs.

keywords: entrepreneurship, sixth industry, sixth industrial entrepreneurship index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gro & Bio-industry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Grant No.314021-03-1-SB070),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Gyeongnam Sixth Industry Support Center, sgkim1005@gmail.com

*** Professor, Gyeong Nam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park@gntech.ac.kr

**** Doctoral Student, Gyeong Nam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firelite0819@gmail.com

***** Professor, Gyeong Nam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bmseol@gntech.ac.kr

***** Gyeongnam Sixth Industry Support Center, winning21@naver.com